

3. 가구 분포

총 42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남평 문씨(南平文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이 성내는 800년 전에 읍성(邑城)이었다 하나 유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을 앞으로 울진 남대천 지류인 월랑천이 흐르고 있다.

제9절 후정1리(後亭一里)[속명 : 뒷당, 후당리(後塘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동해연안이고, 남쪽은 죽변3·5리와 인접하였으며, 서쪽은 비상활주로 건너에 후정 2리가 있다. 북쪽은 북면 덕천리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가운데로 국도가 지나 가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한 해변과 송림으로 주거환경이 좋으며, 전원 농촌이다. 마을회관은 1977년에 처음 건립되었다. 최근에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했으며, 해양수산부의 동해연구소와 경상북도의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해양관련 연구기관이 다수 조성되어 있다. 후정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펜션 등이 대거 입지하며, 한울원자력본부 죽변사택을 비롯,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단지로 변모하였다. 신한울원전 건설로 덕천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덕천마을이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500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지인(田芝麟)이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여 집성촌(田氏集姓村)을 이루었다. 그 후 김녕 김씨(金寧金氏), 진주 강씨(晉州姜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등이 입주하여 마을이 더욱 번성하였고, 지금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많은 가구가 증가하면서 숲이 우거지고 조용하던 전형적인 농촌이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 마을을 뒷당이라 하는 것은 마을 뒤에 천연적인 못(池塘)이 있었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며, 자연부락으로 서당마, 백사장, 부들골, 골마, 덕천마을 등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721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가 집성촌을 이루나, 원전 사택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다양한 성씨들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괴산대(槐山臺)

마을 중앙에 있는 이곳은 매년 음력 대보름날에 달맞이하고 풍년을 기원한다.

2) 몽양사(蒙養祠)

몽양사는 송암(松菴) 전이석(田爾錫)[1599~1652]과 한재(寒齋) 주필대(朱必大)[1616~1693]를 모시는 사우이다. 고종 때 훼손된 후 강학소(講學所)와 재실로 쓰였다. 두 선생의 유허비가 현존하며, 2000년 11월 사우를 개축했다. 송암은 담양 전씨 후당파(後塘派)통정대부 전순우(田舜雨)의 아들로 ‘하늘이 감동한 효자’로 칭송받는다. 세마(洗馬) 이광정(李光庭)이 묘갈명을 지었다. 한재는 신안 주씨 독송(獨松) 주세창(朱世昌)의 후손으로, 만휴(萬休) 임유후(任有後)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현종 3년 사마시에 합격했다. 농암 이현보, 월천 조목, 송강 정철, 백주 이명환과 학문을 교류했다. 유집으로 『한재집(寒齋集)』이 전한다.

3) 삼정산(三亭山)

이 산의 제1봉은 밥봉, 제2봉은 떡봉, 제3봉은 죽봉이라 하며, 풍년과 흉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산이라고 전한다.

4) 성지(城地)

신라 중엽에 후정리 장평에 장산성(長山城)을 구축하고 육해군 2,000명을 상주시킨 울진현 성지이나, 토성으로 구축하였으므로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5) 성황사(城隍祠)

해마다 동회에서 삼헌관(三獻官)을 선정하여,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제사를 올린다.

6) 평대(平臺)

서쪽에 있는 평대는 조선시대 국상(國喪) 때에 동민이 백립(白笠)을 쓰고 망곡(望哭)하였다 하나, 1919년을 마지막으로 현재 이곳은 비상활주로가 되었다.

7) 후정해수욕장

태백준령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동으로 망망대해가 시원하게 트여있으며, 삼척 임원항이 멀리 바라보인다. 후정해수욕장은 끝없이 펼쳐지는 백사장이 있고, 우거진 송림과 청정해역으로 수심이 얇고 100m 전방에는 가리바위가 있다.

제10절 후정2리(後亭二里)[속명 : 매정(梅亭)]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7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후정1리와 인접하였고, 1km 거리에 동해가 있다. 남쪽은 후정3리 지역과 접하고, 서쪽에는 넓은 내평들이 있으며 북면 고목리 지역과 면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은 북면 고목리·덕천리와 경계를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1) 공군이(孔根)

조선 초기에 유학(儒學) 서당이 있었는데, 공자(孔子)의 공(孔)자를 따서 공군이라 부른다.

2) 매정동(梅亭洞)

980년경 고려 경종 때에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을 지낸 장말익(張末翼)이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라고 여겨 세거지로 삼았다. 선생의 호(號)가 매계(梅溪)며, 용호정은 그의 8대손 전리판서공(典理判書公) 양수(良守)의 제단(祭壇)이다. 후인들이 매자(梅字)와 정자(亭字)를 따서 매정(梅亭)이라 하였다 한다.

2. 가구 분포

총 46세대가 거주하며新安 주씨(新安朱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